

# 에도시대 일화가 漱石와 鷗外 문학에 미친 영향 고찰\*

- ‘야채가게 오시치(お七)’ 사건을 중심으로 -

윤혜영\*\*

(e-mail: yun1971@cnu.ac.kr)

---

## 목 차

---

1. 서론
  2.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의 대중화
  3. 소세키 문학 속의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
  4. 오가이 문학 속의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
  5. 결론
- 

## 1. 서론

‘야채가게 오시치(お七)’ 사건은 한때 에도(江戸)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화이다. 오시치(1666(?)~1683)는 에도 혼고(本郷)에서 야채를 파는 상인의 딸인데 1683년 큰 불이 나자 가족 모두가 절로 피난을 간다. 그녀는 그곳에서 주지 곁에서 시중들던 한 소년과 사랑에 빠진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오시치는 불이 나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다. 그러나 미수로 그치고 불잡혀 당시로서는 극형에 해당되는 화형에 처해졌다.<sup>1)</sup>

그런데 이러한 에도시대의 작은 일화가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고 함)와 모리 오가이(森鷗外 1862~

---

\* 이 연구는 2010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근대문학

1) 「17세기 후반, 당시 에도에는 큰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방화죄는 큰 중죄였고 (방화범은) 길에 끌려 다닌 뒤 처형되는 엄중한 형이 가해졌다.」(多田道太郎(1998) 『変身放火論』, 講談社. p.16)

1922, 이하 ‘오가이’라고 함)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오시치는 소세키의 『우미인초(虞美人草)』(『아사히(朝日)신문』 1907.6.23~10.29)와 『산시로(三四郎)』(『아사히신문』 1908.9.1~12.29)에 등장하고, 오가이의 경우 사전(史傳)인 『시부에 추사이(澁江抽齋)』(『도쿄니치니치(東京日日)신문』, 『오사카마이니치(大阪毎日)신문』 1916.1.13~5.13)와 『주아미의 편지(壽阿彌の手紙)』(1916.5~6)에 등장한다.

소세키와 오가이 모두 에도시대에서 메이지(明治)시대로 바뀌는 즉, 급변하는 시대를 살다간 작가이며 시대를 대변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작가와 에도문학 및 에도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논해져 오긴 했지만<sup>2)</sup> 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오시치 및 오시치 사건과 관련지어 이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오시치 사건이 작품화되거나 미신이 만들어져 대중성을 갖게 되어 메이지시대까지 전파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소세키와 오가이가 오시치 및 오시치 사건을 문학작품 속에서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에도시대의 한 일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소세키와 오가이의 서로 다른 문학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2.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의 대중화

에도 시대의 하이쿠(俳句)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 이하 ‘사이카쿠’라고 함)의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1686.2)는 다섯 개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우키요조시(浮世草子)로서 각각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의 제도에 위배되는 사랑을 하였던 세상 보통 여인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권에는 신분이 다른 세주로(清十郎)와 오나쓰(お夏)의 사랑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결국 둘은 도주를 하지만 붙잡혀 세주로는 사형에

2) 오키쓰 가나메(興津要)(1966)는 소세키문학 연구에 있어서 외국문학과 관련된 비교문학적 연구는 활발하지만 일본문학, 일본문화의 전통 속에서 소세키의 문학을 고찰한 것은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라쿠고(落語)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漱石と江戸文化 見落されていた作家の側面」『朝日ジャーナル』, 朝日新聞社). 또한 노구치 다케히코(野口武彦)(1978)는 소세키 문학 속에 에도적인 잔상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漱石と江戸文化」『國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學燈社). 그리고 다카하시 도시오(高橋俊夫)(1983)는 오가이와 소세키 문학 속에는 에도문학의 전통이 살아있다고 기술하고 있다(「近代作家と「江戸」(第一部) - 鷗外・鏡花・漱石 -」『清和女子短期大学紀要』, 清和大学短期大学部).

처해지고 오나쓰는 출가한다. 2권에는 간통을 하다가 들켜 자살(원래 사건에서는 처형을 당함)을 하는 오센(おせん)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3권 또한 간통을 하고 처형당한 오산(おさん)이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1권에서 3권까지의 남녀주인공들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출가를 하거나 자살을 하지만 5권에 등장하는 오만(おまん)과 겐고베(源五兵衛)는 동반자살(心中)을 한 비극적인 실화와는 달리 소설 속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sup>3)</sup>

그리고 4권에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오시치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3년 전에 죽은 오시치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부활된 것이다. 소설 속에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오시치의 모습과 사랑을 위해 방화범이 된 오시치가 에도시대 여기저기를 끌려 다니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그녀의 목숨을 애석해하면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윽고 오시치는 “그 시대에도 드문 화형”<sup>4)</sup>에 처해졌으며 사람들은 “오시치가 입고 있던 고소데(小袖) 군나이지마(郡内縞)의 자투리를 주워 세상 끝날까지 화젯거리로 삼을 생각”이었다는 대목도 보인다. 이어 슬픔에 빠진 기치사부로(吉三郎)의 모습과 그의 출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한결같았던 어린 오시치는 사이카쿠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이 이야기는 “조루리(淨瑠璃)나 가부키(歌舞伎), 그리고 강석(講釈)·만화경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전국방방곡곡으로 퍼졌”<sup>5)</sup>던 것이다.

그리고 오시치가 태어난 해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보통 1668년 또는 166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1666년이라는 설은 병오(丙午)년 말띠 여성에 대한 미신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성행하던 오행설에 병(丙)은 양화(陽火)이고 오(午) 또한 양화이기 때문에 불에 불을 더하는 것은 나쁘고 병오년에는 화재가 난다고 기피”<sup>6)</sup>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할 때 화재와 관련이 깊은 오시치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태어난 해 또한 1666년이라는 설이 발생되었으며, 병오년 미신이 널리 확산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병오

3) 5권의 결말에 대해 이충호는 『호색오인녀』 전체의 결말이라고 언급하면서 「『오인녀』에서는 여기서 비극적 결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보다는 1장과 2장의 겐고베의 남색취향,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오만의 연애의 성취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축언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사이카쿠의 작법임과 동시에 「1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공간 창출을 위해서 『오인녀』에 장치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충호(2003)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의 여성관」 『日本研究』 第2輯,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67)

4) 井原西鶴(1996) 『好色五人女』 岩波書店, p.359

5) 長谷章久(2003) 『江戸・東京歴史物語』, 講談社, p.182

6) 富士川游(1985) 『迷信の研究』, 第一書房, p.33

년에 태어난 여성들은 이 미신으로 인해 “모든 조건이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괴로워하여 자살”<sup>7)</sup>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것을 참고해 볼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이카쿠의 소설의 여파와 더불어 당시 비교적 일반화된 미신으로 인해 오시치 및 오시치 사건은 충분히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삶의 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그리며 당시의 제도나 도덕에 맞서려 했던 사이카쿠의 문학은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메이지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시치 사건을 소설 속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 소세키와 오가이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세키의 경우 「문학론(文學論)」(1907)이나 「동양미술도감(東洋美術圖譜)」(1910) 및 담화 등에서 사이카쿠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오가이가 주최한 『시가라미소시(しがらみ草紙)』(1889.10~1894.8)에 사이카쿠의 작품이 실리면서 그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비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시치의 무덤은 도쿄도(東京都) 분쿄구(文京区)에 소재한 엔조지(円乗寺)에 있는데, 이 근처에 소세키가 영국에서 돌아와 3년 10개월 정도 살면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1905)를 비롯한 초기작품을 집필한 그의 집이 있고, 이 집은 오가이도 살았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사이카쿠의 작가적인 위치 및 오시치를 통해 확산된 병오년 말띠 여성에 대한 미신, 그리고 오시치의 무덤이 소세키와 오가이가 살았던 분쿄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은 그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소세키 문학 속의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

『우미인초』는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 소세키의 첫 신문연재 소설이다. 소세키가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신문사에 입사한 일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목 또한 이 작품에 집중되었다.<sup>8)</sup> 결과적으로 소세키는 초기작품이니만큼 이 소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개성이 강하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

7) 富士川游 위의 책 p.34

8) 「소세키가 대학(교수)을 그만두고 신문사에 들어간 것은 당시 일대 센세이션이었다. 그 소세키가 이번엔 드디어 『우미인초』를 쓴다고 하여 미쓰코시(三越)에서는 우미인초 유카타(浴衣)를 팔기 시작하였고 옥보당(玉宝堂)에서는 우미인초 반지를 팔기 시작하였고 역에서 신문 파는 아이는 “소세키의 『우미인초』”라고 말하며 『아사히신문』을 파는 등 세상은 소란스러웠다.」(小宮豊隆(2007) 『夏目漱石(中)』, 岩波文庫. p.293)

는 여자주인공인 후지오(藤尾)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소세키는 자아가 강하고 자신만을 위한 사랑을 선택하려고 했던 ‘도덕심이 결핍’된 후지오를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한다. 소세키의 작품 속에서 여자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태어난 해가 명시된 것은 후지오 뿐이다.

후지오는 병오년생이다. 후지오는 사랑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한 적도 없다. 시취(詩趣)는 있다. 도의(道義)는 없다. (第3卷 p.211)<sup>9)</sup>

이 “후지오는 병오년생이다”라는 말에 소세키가 그리고자 하는 여성상 및 작품의 테마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병오년생이라는 설정만 보아도 병오년 미신이 가지고 있는 “남편을 죽이는 성질”<sup>10)</sup>이 있을 것이라는 후지오의 성격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기질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후지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sup>11)</sup>고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병오년에 얽힌 미신에는 에도시대의 여인이었던 오시치가 관련되어 있다. 고야노 아쓰시(小谷野敦)가 “재산이나 지위 등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주는 여성이야말로 부인으로 삼거나 연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에도문예의 여성관”<sup>12)</sup>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오시치와 오버랩되는 후지오야말로 소세키가 말하는 ‘도의’를 빼놓고 생각해 보면 고아이자 재산도 없는 오노(小野)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여 물질문명의 발달 속도만큼 인간의 내면이 따라가지 못하고 도덕이 쇠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당시 오시치를 통해 확산된 병오년 미신은 후지오의 결혼을 둘러싼 그녀의 논리와 행동과 그에 따른 결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지오가 병오년생이라는 설정은 오시치가 사랑을 관찰시키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후지오의 죽음을 예상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후지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복선이 된다고도

9) 「藤尾は丙午である。藤尾は己れのためにする愛を解する。人のためにする愛の、存在し得るやと考えた事もない。詩趣はある。道義はない。」

작품의 원문인용은 『소세키전집(漱石全集)』(1967, 전17권, 이와나미(岩波)서점), 『오가이전집(鷗外全集)』(1971, 전38권, 이와나미서점)에 의하며 인용자가 번역하였다. 인용문에는 인용한 권수와 쪽수를 기재하였다.

10) 富士川游 앞의 책 p.33

11) 윤혜영(2008) 「춘원(春園)과 소세키(漱石)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고찰」 『日本研究』第25輯,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86

12) 小谷野敦(1995) 『夏目漱石を江戸から読む』, 中公新書, p.86

할 수 있다. 『우미인초』의 서두에서 후지오의 이복오빠인 고노(甲野)가 죽음만이 진실이며 “죽음에 직면하지 않으면 인간의 번덕은 좀처럼 그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근대인들에게 소세키는 “죽음만이 진실이다”라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잊고 살던 죽음이 생 옆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진지해진다고 생각하며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작가의 회구가 병오년생인 후지오의 조형과 그녀의 운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소세키는 과학적인 소양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작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당시 사회는 미신이 만연되어 있었고 오시치에 얽힌 병오년 미신을 소설 속에 삽입하여 후지오의 성격과 운명, 그리고 작품의 테마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를 통해 작은 소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세키의 뛰어난 문학가적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발표된 『산시로』에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순진한 청년 산시로가 등장한다. 시골과는 달리 설 새 없이 파괴되고 건설되며 움직이는 도쿄를 보고 놀란 산시로는 조용한 연못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우연히 수수께끼와 같은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이 미네코(美禰子)이다. 산시로는 미네코에게 매료되고 줄곧 그녀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과 행동에 방황한다. 미네코가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인지 자신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를 몰라 고민하지만 결국 미네코는 금테안경을 쓴 멋진 남자와 결혼을 결심한다. 정신적인 충격에서인지 독감에 걸린 산시로는 병문안을 온 요지로(与次郎)에게 미네코의 결혼에 관한 전말을 전해 듣는다. 요지로는 미네코의 결혼에 대해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보지, 그런 여자를 생각하다니……. 생각해도 별 수 없어. 먼저 너와 나이가 비슷하잖아. 비슷한 나이의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옛날이야기야. 야채가게 오시치 시대의 사랑이지”<sup>14)</sup> (第4卷 p.296 밑줄; 인용자)

13) 나쓰메 소세키의 「생각나는 일 등(思ひ出す事など)」(『아사히신문』1910~1911)에는 「내 피 속에는 선조의 미신이 지금도 다량으로 흐르고 있다. 문명의 육신이 사회의 날카로운 체적 아래 위축될 때 나는 늘 유령을 믿었다」(『漱石全集』第8卷 pp.317~318)고 기술되어 있고, 소세키는 「미신을 둘러싸고 교묘부인과 대립하였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미신을 따르기도 했던 것인데, 그의 작품 속에는 이러한 그의 일상이 잘 투영되어 있으며 과학과 미신 사이의 고민은 그의 문학작품 속에서 테마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윤혜영(2011) 「소세키 문학 속의 과학과 미신의 형상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 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日本言語文化』第18輯,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597)

14) 「馬鹿だなあ、あんな女を思つて。思つたつて仕方がないよ。第一、君と同年位ぢやないか。同年位の男に惚れるのは昔の事だ。八百屋お七時代の恋だ。」

여기에서 소세키가 ‘야채가게 오시치의 사랑’이 아니라 ‘야채가게 오시치 시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오시치가 살았던 에도시대는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신분제도와 가족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유교적인 사회질서”<sup>15)</sup>가 성립된 시기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다. 결혼에 있어서도 여성의 의사는 무시된 채 부모의 명에 따라야만 했던 시대이자 “모든 연애를 불의로 여겨 인정하지 않고, 결혼은 주인 또는 부모의 명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주인이나 부모의 허가 없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자는 도덕 및 법률에 의해 처분”<sup>16)</sup>되던 시대이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이카쿠가 그린 다섯 명의 여인은 제도를 뛰어넘어 자신의 의지로 사랑을 선택했고 이것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풍토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오시치 또한 화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러한 중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카쿠의 소설 속에는 죽기 전 오시치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머릿결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옷매무새 또한 단정하게 하고 죽음을 기다렸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한결같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도시대적인 여성관에 입각하여 산시로 또한 “자존심을 포함한 그 무엇 하나 희생하려하지 않고 미네코가 스스로 자신을 연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sup>17)</sup>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미네코가 사랑보다는 “남편으로서 존경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시집 갈 생각이 없”다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소세키는 요지로를 통해 근대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산시로에게 재차 시대가 바뀌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근대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 중 오시치를 예로 든 것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오시치는 제도적인 굴레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억압적이고 봉건적인 시대 속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의지를 드러낸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네코가 사는 세계는 자유와 평등이 도래한 시대이고 미네코 또한 외적으로 볼 때 소세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도 신여성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sup>18)</sup>

요지로는 20세 전후의 동갑인 남녀를 비교해보았을 때 여자가 더 낫고 남자는 바보취급을 당할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이나 산시로는 미네코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 『호색오인녀』의 “기치사부로(吉三郎)는 곤란하여 ‘나는 열여섯입니다’라고 말하니 오시치도 ‘나도 열여섯입니다’라고 말한다”(井原西鶴 앞의 책 p.349)는 대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소세키는 『호색오인녀』 속의 오시치와 기치사부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5) 이충호 앞의 논문 p.63

16) 이충호 앞의 논문 p.63

17) 小谷野敦 앞의 논문 p.92

18) 미네코는 명함과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향수를 쓰고 있고 크리스찬이고 영어가 유창하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 외적인면으로 볼 때 신여성의

이러한 치밀한 외적묘사 또한 그녀의 내면세계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미네코는 결국 노노미야(野々宮)의 여동생인 요시코(よし子)를 얻으려던 남자와 갑자기 결혼을 결심하는데 요지로 또한 이에 대해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세키는 신여성의 한계, 나아가서는 일본 근대사회의 외발성(外発性)<sup>19)</sup>에 대한 비판을 에도적 색채를 풍기는 오시치<sup>20)</sup>와 미네코의 대비를 통해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4. 오가이 문학 속의 ‘야채가게 오시치’ 사건

오가이는 에도시대 후기의 의사 겸 고증가(考証家)였던 시부에 추사이(1805~1858, 이하 ‘추사이’라고 함)의 사적(事蹟)에 대해 조사하여 그의 대표적인 사전(史傳)이라고 할 수 있는 『시부에 추사이』를 집필하였다. 관련 서적을 조사하던 중 오가이는 자신과 경우가 비슷한 추사이에게 깊은 관심이 생긴 것으로 유추된다.

내가 추사이를 알게 된 것은 기이한 인연이다. 나는 의사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새 작가의 대열에 서있게 되었다. (중략) 추사이는 의사였다. 그리고 관리였다. 그리고 경서나 제자와 같은 철학방면의 책을 읽고 역사를 읽고 시문집과 같은 문예방면의 책을 읽었다. 그 행적이 나와 매우 비슷하다.<sup>21)</sup> (『시부에 추사이』 第16卷 pp.261~268)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尹惠暎(1999) 「『三四郎』論 -美禰子像をめぐって-」 『現代社会文化研究』 第15号, 新潟大学現代社会文化研究科)

19) 소세키는 1911년 「현대일본의 개화」라는 타이틀로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의 개화(즉 일반적인 개화)는 내발적(内発的)이고 일본현대의 개화는 외발적이다. 여기에서 내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발전한다는 의미로, 마치 꽃이 피듯이 저절로 봉오리가 터져 꽃잎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한편 외발적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다른 힘에 의해 할 수 없이 일종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漱石全集』 第11卷 p.333)

20) 오키쓰 가나메는 “에도적 세계는 소세키 자신에게는 메이지 일본에 대한 문명비평을 전개할 때 인생의 심연(深淵)에 임했을 때 그 지친 마음이 의지할 곳이고 또한 휴식의 창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네코로 대표되는 신여성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에도시대 오시치의 일화를 사용한 것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책 p.21)

21) 「わたくしの抽齋を知つたのは奇縁である。わたくしは医者になつて大学を出た。そして官吏になつた。然るに少い時から文を作ることを好んでみたので、いつの間にやら文士の列に加へられることになつた。(中略)抽齋は医者であつた。そして官吏であつた。そして経書や諸子のやうな哲学方面の書をも読み、歴史をも読み、詩文集の

이와 같이 추사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오가이는 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주아미의 편지’를 손에 넣게 된다. 그리고 그 일부를 『시부에 추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오시치가 등장한다.

분세(文政) 6년(1823) 4월 29일의 일이다. 여전히 시타야(下谷) 초자마치(長者町)에서 약을 팔고 있던 야마자키(山崎)의 집에 로사쿠(五郎作-주아미)가 일부러 야채가게 오시치의 비단보자기라는 것을 보여주러 왔다. 비단보자기는 몇 대 전 마시아(真志屋)에 시집을 간 시마(島)라는 여자의 유물이다. (중략) 시마가 고용살이 갈 때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오시치가 7촌(寸) 4방(方) 정도의 바탕이 오글오글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안감으로 홍견(紅絹)을 붙여 수를 놓아 주었다. 곧 혼고(本郷) 모리카와주쿠(森川宿)에 있던 오시치의 집은 덴나(天和)2년 12월 28일의 화재에 불타버렸다. 오시치는 피난 중에 정인(情人)과 서로 알게 되고 다음해 봄 집에 돌아온 뒤, 다시 정인을 만나려고 방화했다는 것이다. 오시치는 덴나 3년 3월 29일에 16세의 나이로 처형당했다. 시마는 그녀와의 추억이 있는 비단보자기를 애장하여 마시아에 가져왔다.<sup>22)</sup> (『시부에 추사이』 第16卷 p.308 주석 및 밑줄; 인용자)

오가이는 여기에서 시마에게 비단보자기를 선물한 오시치에 대해 짧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추사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오시치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도와 그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딱딱하게 읽힐 수 있는 역사상의 기록 속에 대중성이 강한 오시치의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인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는 것은 물론 소설 속의 주인공이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 사랑을 쫓다가 불행하게 생애 마감한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오가이는 주아미의 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주아미의 편지』를 집필하였다. 주아미는 추사에게 연극에 취미를 갖게 해 준 사람이다. 추사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던 오가이가 주아미에게 특히 관심을 갖은 것은 한때 “연극개량운동 등에 힘을 기울인 오가이의 마음이 통하였”<sup>23)</sup>

やうな文芸方面の書をも読んだ。其迹が頗るわたくと相似てゐる。」

22) 「文政六年四月二十九日の事である。まだ下谷長者町で薬を売つてゐた山崎の家へ、五郎作はわざわざ八百屋お七のふくさといふものを見せに往つた。ふくさは数代前に真志屋へ嫁入した島と云ふ女の遺物である。(中略)島が屋敷奉公に出る時、釋なじみのお七が七寸四方ばかりの緋縮緬のふくさに、紅絹裏を付けて縫つてくれた。間もなく本郷森川宿のお七の家は天和二年十二月二十八日の火事に類焼した。お七は避難の間に情人と相識になつて、翌年の春家に帰つた後、再び情人と相見よとして放火したのださうである。お七は天和三年三月二十九日に、十六歳で刑せられた。島は記念のふくさを愛蔵して、真志屋へ持つて来た。」

23) 山崎一穎(1976) 「鷗外史伝・『寿阿弥の手紙』の構造」 『跡見学園女子大学紀要』, 跡見学園女子大

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두 문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시치의 유품인 비단보자기이다.

이미 오가이는 『시부에 추사이』와 그의 스승인 『이자와 란켄(伊澤蘭軒)』(『오사카마이니치신문』 『도쿄니치니치신문』 1916.6~1917.9)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주아미라는 사람이 미토 번주의 서자였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에 오가이는 그의 묘가 있는 절에 갔다가 아직까지 주아미의 묘에 성묘를 오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주아미의 선조가 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그 여자의 사위가 주아미의 선조에 대해 알 수 있는 문서와 유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속에 야채가게 오시치의 비단보자기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아미의 편지』에는 『시부에 추사이』보다 오시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야채가게 이치자에몬(市左衛門)에게도 또한 한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오시치였다”<sup>24)</sup>라는 대목이 보이고 또다시 불이 나 오시치가 절로 피난을 가고 한 소년과 사랑에 빠지고 그와 재회하기 위해 불을 질러 1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진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에 시마는 오시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오시치의 유물인 ‘비단보자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아미의 편지』에는 오시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오시치를 통해 의문이 풀린 것에 대한 오가이의 놀라움과 흥분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 보인다. “인맥이 연결되는 것을 잘 더듬어 나가는”<sup>25)</sup> 오가이의 인물탐색방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옛날 주아미가 야마자키 요시시게(山崎美成)에게 준 것같이 지금 헤하치로(平八郎)가 오가이 자신에게 준 오시치의 비단보자기와 문서를 통해 미토가의 어용상인이었던 마시야 십 여대(代)의 계승 내력이 거의 빠짐없이 오가이의 눈앞에 전개된 것이다.

야채가게 오시치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나중에 마시야 선조에게 시집을 간 시마에 대한 것은 『가이로쿠』에 쓰여 있다. 오시치가 비단보자기를 만들어 시마에게 준 것은 시마가 고용살이 갈 때 준 전별품이었다는 것도 그 책에 쓰여 있다. 그러나 미토가에서 나와 마시야의 선조에게 시집을 간 의문의 여자가 바로 이 시마였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시마가 고용살이 간 곳이 미토가

학. p.45

24) 「살결은 하였지만 천연두 흔적이 조금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살집이 좋고 결코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설」을 참고로 할 때 이 또한 사이카쿠의 영향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長谷章久 앞의 책 p.182)

25) 梅谷繁樹(2010) 「森鷗外著『寿阿弥の手紙』と『渋江拙斎』」 『時衆文化』 21, 時衆文化研究会. p.193

였던 것을 나는 몰랐다. 마시야 문서를 보고 나는 서자문제와 야채가게 오시치에 대한 것이 모두 시마, 그 장인, 그 남편 세 사람에 관련된 것에 놀랐다. 나는 세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혹은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 중심인물이 시마이다.<sup>26)</sup> (『주아미의 편지』 第16卷 p.555)

즉, 미토가로 고용살이를 간 시마가 미토 번주의 아이를 갖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주아미의 선조에게 시집을 간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오가이는 오시치의 비단보자기를 받은 시마가 “미토가에서 나와 마시야의 선조에게 시집간 의문의 여자”였던 것을 “나는 몰랐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 시마가 고용살이 간 집이 바로 미토가였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고 재차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흥분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오시치의 비단보자기는 오가이의 의문을 풀어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곳이 두 작품 모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가이의 사전(史傳) 속에 등장하는 오시치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독자들의 뇌리에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부에 추사이』와 『이자와 란켄』에는 각각 여성으로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호(五百)나 다카(たか) 등이 등장하는데 오시치 또한 이러한 강인한 의지를 지닌 여성의 계보에 서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가이의 역사소설 속의 여성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5. 결론

이상으로 에도시대의 한 작은 일화인 오시치 사건이 대중화되는 과정과 그것이 소세키와 오가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오시치는 사이카쿠 소설의 주인공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유명해졌고 오시치 사건은 병오년 미신을 만들면서 대중성을 확보하여 메이지시

26) 「八百屋お七の幼馴染で、後に真志屋祖先の許に嫁した島の事は海録に見えてゐる。お七が袱紗を縫つて島に贈つたのは、島がお屋敷奉公に出る時の餞別であつたと云ふことも、同書に見えてゐる。しかし水戸家から下つて真志屋の祖先の許に嫁した疑問の女が即ち此島であつたことは、わたくしは知らなかつた。島の奉公に出た屋敷が即ち水戸家であつたことは、わたくしは知らなかつた。真志屋文書を見るに及んで、わたくしは落胤問題と八百屋お七の事とが俱に島、其岳父、其夫の三人の上に輻り来るのに驚いた。わたくしは三人と云つた。しかし或は一人と云つても不可なることが無からう。其中心人物は島である。」

대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오시치 및 오시치 사건이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두 문호인 소세키와 오가이 문학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소세키 문학의 경우, 먼저 『우미인초』에서는 오시치를 통해 확산된 병오년 미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도덕심이 결핍된 자아가 강한 후지오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면서 그녀의 사랑과 그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갖게 함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그녀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산시로』에서는 외적으로는 신여성적인 면모를 끌고루 갖추고 있는 미네코의 사랑을 ‘오시치 시대의 사랑’으로 상징화시켜 당시 신여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근대사회가 지니는 ‘외발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가이는 자신이 알고자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오시치가 만든 비단주머니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흥분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시치 및 오시치 사건을 가급적 가공하지 않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오가이 문학 속에서 오시치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과 역사상의 기록인 사전(史傳)이라는 장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소세키와 오가이는 누구나 알고 있을만한 대중성을 지닌 오시치를 예로 들어 자신들의 뛰어난 문학가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테마를 극대화시키고 작품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윤혜영(2008) 「춘원(春園)과 소세키(漱石)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 고찰」  
『日本研究』 第25輯,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186
- \_\_\_\_\_ (2011) 「소세키 문학 속의 과학과 미신의 형상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 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 『日本言語文化』 第18輯, 한국일본언어문  
화학회. p.597
- 이충호(2003) 「『호색오인녀(好色五人女)』의 여성관」 『日本研究』 第2輯, 고려대  
학교 일본학연구센터. p.63 p.67
- 井原西鶴(1996) 『好色五人女』 岩波書店. p.349 p.359
- 梅谷繁樹(2010) 「森鷗外著『寿阿弥の手紙』と『渋江抽斎』」 『時衆文化』 21, 時衆  
文化研究会. p.193
- 興津要(1966) 「漱石と江戸文化 見落されていた作家の側面」 『朝日ジャーナル』, 朝日新  
聞社. p.21
- 小宮豊隆(2007) 『夏目漱石(中)』, 岩波文庫. p.293
- 小谷野敦(1995) 『夏目漱石を江戸から読む』, 中公新書. p.86 p.92
- 高橋俊夫(1983) 「近代作家と「江戸」(第一部) -鷗外・鏡花・漱石-」 『清和女子短期  
大学紀要』, 清和大学短期大学部
- 多田道太郎(1998) 『変身放火論』, 講談社. p.16
- 夏目漱石(1967) 『漱石全集』 第3卷, 第4卷, 第8卷, 第11卷, 岩波書店.
- 野口武彦(1978) 「漱石と江戸文化」 『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 森鷗外(1971) 『鷗外全集』 第16卷, 岩波書店.
- 長谷章久(2003) 『江戸・東京歴史物語』, 講談社. p.182
- 富士川游(1985) 『迷信の研究』, 第一書房. p.33 p.34
- 山崎一穎(1976) 「鷗外史伝・『寿阿弥の手紙』の構造」 『跡見学園女子大学紀要』,  
跡見学園女子大学. p.45
- 尹恵暎(1999) 「『三四郎』論 -美禰子像をめぐる-」 『現代社会文化研究』 第15号, 新  
潟大学現代社会文化研究科

## 要 旨

本論文では、江戸時代の一つのエピソードであるお七及びお七事件が大衆化された過程と、それが漱石と鴎外の作品の中にどのように投影されているか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まずお七は井原西鶴の『好色五人女』の主人公として以来全国的に広がり、火と関係のあるお七事件は丙午年の迷信が広まりながら大衆性を確保し、明治時代へと伝播された。このような背景からお七及びお七事件は近代文学を代表する文豪である漱石と鴎外に作品に登場するに至ったのであろう。

漱石の場合まず『虞美人草』においてお七から広がった丙午年の迷信を効果的に引用し、道徳が欠乏した自我の強い藤尾の性格を代表的に象徴しながら藤尾の愛とその行歩に対して否定的な視覚を持たせ、また不自然とも思われる彼女の死に納得できるような仕掛けになっていると言える。また『三四郎』では外面では新しい女としての条件を揃えている美禰子の恋に対し漱石は「お七時代の恋」だと言っており、当時の新しい女性の限界、強いては近代社会が持つ「外発性」を批判している。

一方、鴎外は自分が知りたかった歴史的な事実がお七が作った袱紗と関係があることに興奮しており、『澁江抽齋』と『壽阿彌の手紙』の中に、できるだけありのままの事実を加工しないでお七及びお七事件を比較的詳しく記録している。鴎外の文学の中でお七は生きた歴史として復活しているのであろう。

小説と史伝というジャンルの差はあるが、漱石と鴎外は大衆性を持ったお七を作品の中に挿入しながら自分達の優れた文学者的な力量を発揮し、作品のテーマを極大化させ作品の特徴を浮刻しているといえる。

キーワード：お七、好色五人女、丙午年の迷信、新しい女性の限界、外発性、  
袱紗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